

방언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몇 어휘

–신체어를 중심으로–

곽 재 용

〈차례〉

- | | |
|-------------|------------------------|
| I. 들머리 | III. 방언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신체어 |
| II. 신체어의 특징 | IV. 마무리 |

I. 들머리

방언어휘는 보수적인 속성을 지니므로 고어가 남아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언어를 통시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옛 문헌에 수록된 어휘가 현대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을 때 그것이 사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사어화된 어휘를 지명이나 방언에서 발견하여 재구하는 일이 있는데 이 작업도 국어학자의 중요한 임무에 속할 것이다.

이 글은 중세국어의 많은 어휘가 수록된 ‘훈몽자회(최세진, 1527)’의 ‘身體’部에 나타난 새김[訓, 釋] 중에서 표준어로는 쓰이지 않은 것은 물론, 거의 사어화된 어휘들을 기존의 방언사전에서 찾아보고 465년이 지난 지금 그 흔적이나마 확인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신체어의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II. 신체어의 특징

훈몽자회는 상·중·하의 세 권으로 구성된 한자학습서¹⁾이다. 이것은 千字文과 類合의 결합을 보완하게 위하여 만든 분류어휘집으로 체제는 다음과 같다.

상권 : 天文(72), 地理(136), 花品(16), 草卉(64), 樹木(40), 草實(40), 禾穀(24), 蔬菜(64), 鳥禽(88), 鱗介(40), 昆蟲(104), 身體(208), 天倫(96), 儒學(32), 書式(32).

중권 : 人類(112), 宮宅(96), 官衙(8), 器皿(312), 食饌(80), 服飾(88), 舟船(32), 車輿(24), 鞍具(24), 軍裝(64), 彩色(24), 布帛(24), 金寶(32), 音樂(16), 疾病(80), 葬葬(24).

하권 : 雜語(1120).

상·중권은 32부문에 2,240자를, 하권에는 雜語 1,120자를 실어 모두 3,360자의 표제어를 올림말로 하고 있다. 훈몽자회의 체제 중 표제어가 100개 이상인 항목은 雜語(1120)를 제외하면 器皿(312), 身體(208), 地理(136), 人類(112)의 순으로, ‘신체’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훈몽자회 ‘신체’부의 208 어휘를 모두 신체어에 포함시켜²⁾ 다른 분류어휘집의 ‘신체’ 항목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분류어휘집은 모두 국어어휘를 의미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1) 훈몽자회의 판본으로는 예산문고본(예산), 동경대학 중앙도서관본(동대), 존경각본(존경), 동국서림본(동국) 등이 있다. () 속은 각각의 약어이다. 영일본은 흥윤표의 해제가 실린 弘文閣(1985) 참조. 논의는 李基文(1971), 이돈주(1979, 1985), 박병철(1984), 남기탁(1988), 손희하(1991) 참조.

2) 물론 이 208개 중에는 신체어라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여월, 골물, 거품, 조오름, 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상 이들도 신체어에 포함시켰다.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임지룡(1989: 415~422)에 의하면 국어의 분류어휘집을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계열로 묶었다.

- ① 자회류 계통의 분류어휘집: 訓蒙字會, 新增類合, 正蒙類語, 通學經編, 字類註釋
- ② 類解類 계통의 분류어휘집: 朝鮮館譯語, 譯語類解, 倭語類解, 同文類解, 蒙語類解, 方言類釋³⁾
- ③ 物名類 계통의 분류어휘집: 物譜, 才物譜, 靑館物名攷, 物名考
- ④ 方言類 계통의 분류어휘집: 朝鮮語方言の研究(小食進平), 한국방언연구(김형규), 한국방언사전(최학근), 방언사전(김병제), 한국방언조사질문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 ⑤ 表現辭典類 계통의 분류어휘집: 우리말 분류 사전(남영신), 우리말 갈래사전(박용수)

이들 분류어휘집은 시대적으로 ‘朝鮮館譯語’부터 ‘우리말 갈래사전’에 이르기까지 500년의 시간폭을 지니고 있다. 이들 분류어휘집에서 ‘신체’ 항목의 표제어 수를 다른 항목의 표제어 수와 간략히 비교해 보자.

① 朝鮮館譯語⁴⁾

19門에 597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인 15세기 초의 문헌으로 會同館에서 발간했다.

표제어수가 많은 門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地理門(64), 人事門(63), 天文門(55), 鳥獸門(43), 時令門(40), 器用門(38), 人物門(37), 花木門(36), 身體門(35)……의 순으로 신체어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3) 지금까지 주로 方言集釋으로 알려져 왔으나 영인본(弘文閣)에는 분명히 類자를 集자로 덮어 쓴 흔적이 뚜렷하여 方言類釋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4) 조선관역어에 대해서는 강신항(1974), 문선규(1972)를 참고했다.

② 訓蒙子會

앞에서 언급했지만 상·중권에만 표제어 2240자에 32부문, 신체어 표제어는 208개로 器皿(312) 다음인 두 번째로 많다.

③ 新增類合⁵⁾

1576년 柳希春이 전래의 한자 입문서인 類合을 수정·증보한 책이다. 2권 1책으로 상권에는 24부문에 표제어 1000자, 하권에는 3부문에 2000자가 들어있다. 하권의 動止(1492), 事物(504)를 제외하면 天文(104) 다음으로 많은 표제어수를 가진 항목이 신체(72)이다.

④ 譯語類解⁶⁾

1682년 司譯院의 慎以行·金敬重·金指南 등의 역관이 편찬한 중국어와 국어에 대한 분류어휘집이다. 상·하 2권 2책으로 62부문에 4,691항의 표제어가 실려있다. 표제어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瑞設(429), 走獸(245), 食餌(299), 器具(276), 身體(179), 服飾(176)……의 순으로 신체항 표제어수는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⑤ 倣語類解⁷⁾

18세기 초 司譯院에서 洪舜明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어와 일어에 관한 분류어휘집이다. 상·하 2권 2책으로 55부문에 표제어 3351개가 실려 있다. 표제어수가 제일 많은 항이 하권의 雜語(372)와 器具(158)이고 다음이 상권의 身體(95)이다. 즉 신체항은 상권에서는 첫 번째, 상·하 전체로는 세 번째로 많다.

⑥ 同文類解⁸⁾

1748년 玄文恒이 지은 중국어, 국어, 청어에 관한 분류어휘집이다. 상·하 2권, 55부문에 표제어수가 4803개이다. 표제어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雜

5) 영인본은 단국대학교 출판부(1972) 참조, 논의는 신경철(1978), 박병철(1986), 손희하(1991) 참조.

6) 영인본은 아세아문화사(1974) 참조.

7) 간행시기에 대해 논의가 분분하지만 18세기 초로 잡고 논의를 진행한다. 영인본은 太學社(1988) 참조.

8) 영인본은 東方學研究所(1956) 논의는 趙健相(1968, 1971) 참조.

語(597), 飲食(194), 動靜(194), 走獸(172), 服飾(144), 地理(138), 人事(132), 身體(130)……가 되어 신체항이 8위를 차지한다.

⑦ 豐語類解⁹⁾

현존하는 몽어유해는 1768년 李億成이 수정·간행한 것을 1790년 方孝彥이 증보·간행한 것으로 司譯院에서 몽고어 학습용으로 간행한 분류어휘집이다. 상·하권으로 54부문에 3842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雜語(465), 飲食(173), 動靜(150), 走獸(141), 器具(124), 地理(113), 服飾(113), 身體(108)……가 되어 身體항이 여덟 번째가 된다.

⑧ 方言類釋¹⁰⁾

1778년 洪命福 등이 편찬한 중국어, 국어, 청어, 동어, 왜어에 관한 분류어휘집이다. 4권 2책의 필사본으로 87부문에 표제어수는 5037개이다. 권 1에는 19부문에 1349항목, 권 2에는 27부문에 1,242항목, 권 3에는 25부문에 1,114항목, 권4에는 16부문에 1,332항목이 실려 있다. 方言類釋의 항목별 표제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雜語(433), 走獸(164), 天文(157), 身體(149), 時令(137)……의 순으로 身體항은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⑨ 物 譜¹¹⁾

18세기 후반 李嘉煥에 의해 초고가 만들어지고 1802년 그의 아들 李載威에 의해서 체계화된 물명에 대한 필사본 분류어휘집이다. 상·하 2편 8部 49類에 한자물명 1,469, 국어물명 998,¹¹⁾ 모두 2467개의 물명이 분류되어 있다. 상편의 天生萬物에는 4部 21類로서 한자물명 815, 국어물명 527, 하편의 人爲萬事에는 4部 28類로서 한자물명 654, 국어물명 471개가 실려 있다. 신체부는 形體(10/16),¹²⁾ 氣血(21/29)로 그 표제어 수는 많은 편은 아니나 상·하편 8부

9) 영인본은 서울대학교 출판부(1971), 논의는 宋基中(1985) 참조.

10) 영인본은 弘文閣(1985), 논의는 최범훈(1985) 참조.

11) 物譜에 대해서는 李家源(1960:73-100) 참조.

이가원(1960:77)에 의하면 국어품명(국어물명)이 상편에 528, 하편에 471로 도합 999로 나와 있으나,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상권 527, 하편 471로 모두 998이다.

12) () 안의 숫자 중 앞은 국어물명수, 뒤는 한자물명수를 나타낸다.

6 嶺南語文學(第22輯)

중에 신체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은 신체어가 어휘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⑩ 青館物名攷¹³⁾

19세기 초 정약용이 유배지인 강진에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 분류어휘집이다. 22류에 걸쳐 물명에 관한 표제어 1743개를 분류하고 있다. 역시 많은 표제어수대로 적어 보면 野草類(298), 服飾類(162), 身體類(146)……의 순이다. 身體類가 세 번째로 많다.

⑪ 字類註釋¹⁴⁾

1856년 鄭允容이 훈몽자회의 취지를 넓혀서 어린이들의 학습과 어른들의 상고를 목적으로 만든 분류어휘집이다. 2권 2책의 필사본으로, 5部 35類에 11,000여자의 한자를 분류하여 훈과 음을 달고 주석을 불였다.

5부 중에서 신체어휘가 들어있는 人道部의 어휘수가 4,384로 제일 많고 이 部에서 身體類가 795로 제일 많다. 또 이 숫자는 35類 전체 중에서 草木類(8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⑫ 道學經編¹⁵⁾

1916년 黃應斗가 지은 한자 학습서로서 상·하 양편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상편이 분류어휘집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상편은 “物目名稱 字類會合”으로 14部·類에 464자의 한자를 분류하고 그 훈과 음을 달았으며, 하편은 “書聚文字 意味包含”으로 상편의 14部·類를 각 4자로 설명한 뒤, 698자의 한자마다 한글로 훈과 음을 달아 놓았다. 상편에서 표제어가 제일 많은 部는 身體部(56)이고 그 뒤를 器械類(48), 地軸部(40), 家屋類(40) 등이 따르고 있다.

⑬ 朝鮮語方言の研究¹⁶⁾

1944년 小倉進平의 유고로 우리 나라 방언에 대한 자료와 이론이 들어 있

13) 영인본은 輿猶堂全書補遺(二), 景仁文化社(1974) 참조.

14) 영인본은 건국대학교 출판부(1974) 참조.

15) 이에 대한 논의는 임지룡(1989:406)을 참조한다. 경북대학교 소장본 참조할 것.

16) 자료편은 亞細亞文化社(1973) 참조.

다. 상권은 자료편인데 우리 나라 방언자료를 유형별로 나누고 자리적 분포를 표시한 분류어휘집이다. 28부문에 1,299항목이 분류되어 있는데, 기능어를 제외한 내용어는 22부문에 784항목이 된다. 표제어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내면 器具(76), 動詞(70), 人倫(59), 身體(55)로서 신체어휘 비중은 세 번째로 역시 높은 편이다.

⑭ 現代朝鮮語基礎語彙集¹⁷⁾

1971년 梅田博之가 국어의 기초어휘를 의미 유형별로 편성한 분류어휘집이다. 28부문에 표제어 956(주항목 456, 부수항목 500)개가 수록되어 있다.

人體항의 표제어수는 87로 맨 앞에 나오면서 제일 많은 숫자이다. 그 외 數量(67), 動物(63), 天文·地文·鑛物(62), 食(60)……의 순으로 표제어수가 적어지고 있다.

⑮ 韓國方言研究¹⁸⁾

1974년 김형규가 지은 것으로 상권의 자료편과 하권의 연구편으로 되어 있다. 상권의 자료편이 분류어휘집인데 28개 부문에 표제어 1,458개를 의미내용에 따라 분류 배치하였다. 기능어인 조사, 어미, 종결어미를 제외하면 27부문에 표제어는 788항목이 된다. 器具(82), 動詞(61), 身體(51), 服飾(46)……의 순으로 표제어수가 적어지는데 신체어가 세 번째로 많다.

⑯ 韓國方言辭典¹⁹⁾

1978년 최학근이 지은 방언사전으로 앞부분의 자료편이 분류어휘집이다. 25부문에 표제어는 1707개가 수록되어 있다. 표제어수가 많은 것부터 나열하면 動詞(299), 形容詞(151), 人體(136), 副詞(105)……순으로 되어 있다. 人體는 세 번째이나 동사, 형용사를 제외한 명사만으로는 제일 많은 표제어수를 가진 항목이다.

⑰ 방언사전²⁰⁾

1980년 김병제가 지은 방언관계 사전으로 제1편은 “방언에 대응하는 문화

17) 梅田博之(1971), 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マフリカ言語文化 研究 참조.

18) 金亨奎(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참조.

19) 최학근(1978),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참조.

20)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참조.

어”로서 표제어 방언을 자모 차례로 배열하고 그에 대응하는 문화어에다가 간단한 뜻풀이를 단 것이며, 제2편은 “문화어에 대응하는 방언”으로서 낱말의 뜻을 기준으로 21부문에 1426개의 표제어를 분류한 것으로 이것이 분류어휘집이다. 표제어수가 많은 순서대로 항목을 나열하면 쓰고 사는 기구·도구와 관련된 말마디(247), 행동과 관련된 말마디(216), 동물과 관련된 말마디(195), 대상의 성질·상태와 관련된 말마디(167), 사람의 몸·병과 관련된 말마디(163)……으로 신체어와 관련있는 항목의 표제어수는 163개, 다섯 번째이다.

⑧ 한국방언 조사질문지²¹⁾

198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국의 방언조사 연구를 위하여 만든 질문지형식의 항목표이다. 어휘·문법·음운의 세 편으로 되어 있으며, 총항목수는 1786(주항목 827, 부수항목 356, 보충항목 603)개이다. 그중 어휘편은 분류어휘집으로서 의미분야에 따라 13개의 대항목 아래 70개의 소항목을 두고, 1,470개의 어휘가 배열되어 있다.

대항목 중 가장 많은 표제어수를 가진 것은 動作(175)이고 다음이 動物(157)이고, 그 다음인 세 번째가 인체(152)인데, 여기에는 다시 머리(11), 얼굴(20), 눈(15), 코·귀(17), 세수(16), 상체(12), 하체(14), 피부병(16), 질병(11), 생리(20)으로 구성되어 있다.

⑨ 우리말 분류사전²²⁾

1987년 남영신이 엮은 분류어휘집으로 18개의 대항목 아래 163개의 소항목을 두었는데, 표제어는 21,272개이다. 올림말의 모습은 토박이말로 된 표제어에다가 간단한 뜻풀이와 참고 낱말을 곁들이고 있다. 여기서의 신체어 수록항목은 동식물 및 사람의 구조와 생리(소항목 12/표제어 1935)로 표제어수로는 맨 끝에 실린 여러 가지 동물·식물의 이름(8/4163)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이다. 동식물 및 사람의 구조와 생리 중에서 신체어는 사람의 몸 이하 1038개로 파악했다. 이 숫자는 그 전의 분류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와 비교해서 크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방언조사질문지.

22) 남영신(1987), 우리말 분류사전, 한강문화사, 그 뒤 (2)(3)편이 나왔으나 이름씨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것이므로 논의를 한정한다.

게 증가한 모습이다. 올림말의 모습이 토박이말만으로 된 표제어라 더욱 그렇다.

⑩ 우리말 갈래사전²³⁾

1989년 박용수가 엮은 분류어휘집이다. 표제어는 33,721개를 33부문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품사별·용어별·유의어별로 소분류하였다.

항목을 차례대로 보면

사람의 봄(1287), 사람의 행위(6429), 사람의 마음(558), 사람의 별칭(912)……로 되어 있다. 사람의 봄 중에서 그림씨나 움직씨를 뱐 신체어는 836개로 파악되었다. 앞의 우리말 분류사전과 비교하면 신체어수에서 202개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신체어에 대한 범위 설정과 규정의 자의적 해석에 기인하는 티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개의 분류어휘집을 시대순별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모두는 우선 신체(혹은 인체) 항목을 가진다.²⁴⁾ 이 공통점은 국어의 어휘에서 신체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 분류어휘집들 모든 것에 신체어의 어휘수가 다른 항목의 어휘수에 비하여 대단히 많았다. 이 사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국어의 어휘에서 신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극단적으로 신체어휘를 제외하고는 국어의 어휘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어의 신체어휘는 국어 기초어휘 설정에도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할 것이다. 영어나 일어 사전에 등재된 기초어휘가 아직 국어사전에는 없는 실정이다. 중학교에서 한자 900자를 배우고 고등학교에서 900자를 배워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국어의 어휘는 언제 몇 개를 익혀야 하는지 명시

23) 박용수(1989), 우리말 갈래사전, 한길사 참조.

24) 물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분류어휘집도 상당수 있다. 才物譜, 正蒙類語, 物名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순수 국어어휘가 빈약하거나 신체어가 없어서 제외한 것이다.

되어 있지 못하다.

임지룡(1991)의 논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로 한국어 기초어휘 1,500개를 설정하고 있다.

- ① 사람에 관한 어휘(201개)
- ② 의식주에 관한 어휘(161개)
- ③ 사회생활에 관한 어휘(156개)
- ④ 교육 및 예체능에 관한 어휘(153개)
- ⑤ 자연계에 관한 어휘(164개)
- ⑥ 감각 및 인식에 관한 어휘(167개)
- ⑦ 동작에 관한 어휘(250개)
- ⑧ 상태에 관한 어휘(150개)
- ⑨ 기타(대명사, 의존명사, 부사, 보조동사, 형용사, 관형사)(100개)

여기서도 신체어와 관련되는 사람에 관한 어휘가 맨 처음 언급되고 있고 그 양도 ⑦ 동작에 관한 어휘(250)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숫자이다. ① 사람에 관한 어휘(201개)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인체(69개) : 가슴, 머리, 목, 배 등
- 정신(25개) : 감정, 개성, 겁, 뜻 등
- 부류(100개) : 국민, 고아, 남자, 여자 등
- 기타(7개) : 나라, 이름, 성, 표정 등

결국 이 논문에서 설정한 기초어휘 1500개 중에서 순수 신체어휘는 69 개가 되는 셈이다.

신체어는 다른 국어 어휘들과는 달리 단음절어가 많다. 실제 국어의 어휘들은 95% 이상이 다음절어²⁵⁾인데 놀라운 것은 신체어의 대부분은 단

음절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목구비를 비롯한 외부적인 중요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 내부의 중요 장기에 이르기까지 단음절어가 매우 많다.

눈, 코, 귀, 입, 이, 목, 턱, 손, 발, 볼, 젖, 불, 뺨, 뼈, 등, 배, 팔, 털, 낫,
꼴, 뜸, 살, 피, 땀, 침, 애, 양, 위, 장, 폐, 간,……

이 가운데 한자어는 마지막의 네 개 정도이다. 그리고 한자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음절어의 형태로 국어에 수용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자어의 우리말 정착과정에 있어서도 개별 字素가 그대로 우리말이 되는 경우는 적고, 대개가 土地, 身體, 海洋, 河川, 家屋들처럼 겹말의 형태로 정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단음절어가 많고 순우리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체어의 한 특성이다. 따라서 신체어는 국어의 기초어휘 선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II. 방언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신체어

훈몽자회의 신체부 208 어휘 중에는 현대에 전연 쓰이지 않는 어휘가 적지 않다. 새김은 말할 것도 없고 음도 현재음과 다른 것이 더러 있다. 그런데 방언 자료를 살펴보면 간혹 그 혼적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에 참고한 방언 어휘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김형규(1974), 최학근(1987), 김병제(1980)이 있다. 또 개별 지역 방언자

²⁵⁾ 김종택(1992:219) 참조. 여기에 의하면 소사전(표준새국어사전, 이상사, 1980)

에 실린 어휘들 54,000여개 중 1260여 어휘만이 단음절어이고 나머지 97% 이상은 다음절어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료집으로는 김영태(경남, 1975), 현평효(제주, 1962), 최학근(전남, 1962), 이돈주(전남, 1978), 김이협(평북, 1981) 등이 참고되었다. 그 외 한국방언자료집 Ⅱ, Ⅲ, Ⅳ, Ⅴ, Ⅶ권(정신문화연구원, 1979~1989)이 있다.

① 눈부터 동 瞳〈훈몽상 25 : 1527〉

눈부쳐 : 眼瞳子〈역어상 32 : 1682〉

눈부쳐 동 : 瞳〈왜어상 16 : 18c 초〉

눈동즈 동 : 瞳〈자류주석 : 1856〉

눈동자 동 : 瞳〈자전석요 : 1906〉

눈부쳐 : 눈동자에 비치며 나타난 사람의 형상〈한글학회 : 1992〉

눈동자 동 : 瞳〈장삼식 : 1975〉

눈부처[nun-butʃə]〈경북〉 경주, 고령, 〈충북〉 충주, 〈충남〉 조치원, 청양, 부여, 당진, 〈강원〉 홍천, 〈전북〉 무주, (최학근 : 1987 : 335)

눈부체[num-butʃé] 〈경북〉 성주(최학근 : 335)

눈부치[nun-butʃi]〈경북〉 포항(최학근 : 335)

눈부터는 ‘눈-부텨[佛]’로 분석되며 18세기 초의 문헌인 웨어유해까지 ‘눈부쳐’로 나타났으나 1856년 문헌인 자류주해에는 ‘눈동즈’로 나타난다. 따라서 18세기 초까지는 ‘눈부터’에서 ㅅ이 탈락되고 구개음화와 단모음화 현상이 일어난 ‘눈부쳐’가 문헌에 등장하였다. 지금도 ‘눈부처’를 쓰고 있는 지역이 경북, 충남북, 강원, 전북 일부로 나타나 있고, ‘처’가 ‘체’나 ‘치’로 변한 상태로 경북 일부 지방에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훈몽자회상〉의 ‘눈부터’가 〈역어〉에 와서 ‘눈부쳐’로 변한 것에서 사이ㅅ의 병서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니 곧 〈왜어상〉에서 ‘눈부쳐’로 ㅅ이 탈락하게 되었다. 사이ㅅ의 병서화가 형태상으로나 음운상으로 적절치 못하더니 단명

한 것으로 보인다.

‘눈부터’와 관련하여 ‘눈즈수’, ‘눈망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눈즈쉬 청 睽<훈몽상 25, 예산 : 1572>

눈즈수 청 睊<훈몽상 25, 동대>

눈즈으 젊 睊<훈몽상 25, 동국>

머릿바기며 눈즈쉬며<월석 1, 13 : 1459>

늙즈쉬<법 2 : 1463>

두 늙즈수 눈<두 16.40 : 1481>

눈즈쉬라 호문<남명하 52 : 1482>

눈쭈쉬 금죽기 아니ᄒ야<능 2.13 : 1462>

사ᄅᆞᆷ이 눈즈수 를<석 23.26 : 1447>

눈즈쉬 뛰디 아니ᄒ면<동법 25 : 1472>

눈즈스<은종 19 : 1592>

눈구술 경<자류주석 : 1856>

눈망을 경<아학편>, <자전석요 : 1906>

눈 검은 자위 정<신자전 : 1915>

눈동자 정 瞳<정삼식 : 1975> .

훈몽자회에서도 판본에 따라 혼기 현상이 나타난다. 훈몽자회 이전의 문헌에서 ‘늪-’과 ‘늪-’의 혼기, 즉 사이스이 ‘ㅅ’으로도 표기되고 ‘ㄷ’으로도 표기될 수 있었던 것은 후속되는 초성이 ‘ㅈ’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ㅈ’ 앞에서는 ‘ㅅ’과 ‘ㄷ’의 발음차가 없어지거나 완화되는 어떤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눈쭈쉬<능>’에서 ‘ㅅ+ㅈ’이나 ‘ㄷ+ㅈ’은 다같이 ‘ㅈ’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사이스은 후속하는 명사의 첫 자음이 ‘ㅅ’이나 ‘ㅈ’일 때는 빈번히 이들과 병서하여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었

다. ‘ㅅ’음이 후속될 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름 쏘리 즘계 나마 가며〈월석 1.27 : 1459〉

낫소리 는〈훈 4 : 1446〉

그는 엄쏘리니〈훈 4 : 1446〉

몸 쓰시예〈능 2.7 : 1462〉

눈즈쉬(눈즈수, 눈즈으)는 자류주석(1856)에서 ‘눈구술’로, 아학편(20세기초)에서 ‘눈망울’로 바뀌었다. 눈즈수를 분석하면 ‘눈+즈수’가 된다. ‘즈수’는 ‘實’〈원각상〉, ‘核’〈내훈 1:9, 구간 6:28〉의 예처럼 쓰였는데 ‘자위’가 된다. 신자전(1915)에 睛을 ‘눈 검은자위 정’이라고 했다. 계란에 ‘노른자위, 흰자위’ 부분이 있듯이 ‘눈자위’에도 ‘검은 자위·흰자위’가 있다.

② 눈망울 모 眚 〈훈몽상 25 예산 : 1527〉

눈마울 모 眚 〈훈몽상 25 동대〉

눈망을 모 眚 〈왜어유해 : 1682〉

눈동즈 두. 모 眚 〈자류주석 : 1856〉

눈동자 모 眚 〈자전석요 : 1906〉

눈동자 모 眚 〈장삼식 : 1975〉

눈망울 : 눈알 앞쪽의 두도록한 곳, 눈동자가 있는 곳〈한글학회 : 1992〉

눈뼈울[nun-pajul] 〈경주〉 영덕, 〈경남〉 울산, 양산, 부산,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충무, 거제, 진양, 하동, 〈충북〉 청주, 연풍, 괴산, 음성, 〈충남〉 예산, 안면, 〈전북〉 고창, 정읍, 순창, 남원, 임실, 전안, 장계, 〈전남〉 장성, 나주, 광주, 영광, 함평, 목포, 해남, 진도, 완도, 장흥, 강진, 화순, 보성, 고흥,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강원〉 도계, 홍천〈최학근 : 1987 : 333-334〉

눈빠울[nun-paul] <경남> 거창<최학근 334>

눈마을[nun-majul] <경북> 포항, 경주, 경산, 대구, <경남> 거창, 함양, 남해, 울주, 양산, <충북> 보은, 충주, 제천, <충남> 청양, 홍성, 당진, 대전, 논산, 부여 <전북> 무주, 부안, <강원> 도계, 정선, 평창, 원성, 횡성, 홍천, 춘성<최학근:333>

훈몽자회 두 판본에서 차이가 난다. 훈몽자회 이후의 문헌을 보면 눈망울이 눈동자의 의미로 읊겨간 듯하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눈망울과 눈동자의 의미차는 인정해야 될 것 같다. 눈동자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눈망울’이 ‘눈+망울’로 분석되어 ‘망울’과 ‘방울’의 의미가 같아 ‘눈망울=눈방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당울=방울’은 잘 성립되지 않는다. 꽃망울→꽃방울(×), 젖망(멍)울→젖방울(×), 빗방울→빗망울(×)에서 망울이 방울로 대체될 수 없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울은 鈴의 뜻으로 빗방울, 땀방울, 물방울, 솔방울과 같이 조어력이 강하다. 따라서 눈방울이 성립된다. 특히 방언에서 눈방울류가 앞의 예에서처럼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눈방울의 성립을 뒷받침한다.

③ 눈두에 검 瞳<훈몽상 25:1527>

눈두에 검<왜어유해:1682>

눈시울 검<자류주석:1856>

눈시울 검<자전석요:1906>

눈두베<몽법 2:1472>

눈시울 검 瞳<장삼식:1975>

눈두베[nun-dube]<함복>경성, 나남, 청진, 부령, 무산, 회령, 종성, 경원<최학근:1987:332>

눈뚜베<함복>무산, 라진, 은덕, 새별, 회령, 온성, 경성, 어랑, 명간, 응

기<김병제 : 1980 : 226>

‘눈두뻬’는 ‘눈+두뻬’의 구성인데 ‘두뻬’는 다시 ‘둡(覆 ‘둡다’의 어간) +에(명사화접사)’로 분석된다. ‘눈두뻬’의 혼적이 방언에서 발견되는데 주로 <함북>이다. 눈시울 검으로 현재의 瞰을 읽지만 눈시울의 의미가 아닌 ‘눈두덩’ 혹은 ‘눈꺼풀’을 뜻한다.

④ 입시울 순 脣 <훈동상 25 : 1527>

입시울 순 脣 <신증유합 상 21 : 1576>

입시울 순 脣 <왜어유해 : 1682>

님순울 순 脣 <자류주석 : 1856>

입시울 순 脣 <아학편 : 20c 초>

입수얼 순 脣 <자전석요 : 1906>

입설 순 脣 <신자전 : 1915>

입술 순 脣 <장삼식 : 1975>

모기며 입시우리 내물라<석 九 29 : 1447> <월석九50 : 1459>

ழ은 입시우리라 <훈 : 1446>

입시불[ip-sibil] <경북> 영천, 경주 <최학근 : 1987>

입시울[ip-siul] <경북> 군위, 김천 <최학근>

‘입술’의 중세어인 ‘입시울’이 경북 일부지역에서 방언 형태로 남아 있다. 입시울은 ‘입+시울’의 조어로 ‘눈+시울’, 활시울 <노해하 29>와 같은 형식이다.

‘시울’은 옛문헌에

시울 : 紘<두 7:30 : 1481>

시울 현 : 弦 <훈동중 28 : 1527>

시옮 : 絃 〈내훈 2:89 : 1475〉

시옮 : 弦 〈노해하 27 : 1670〉

활시위 : 弓弦 〈한청 5:16〉

활시의 : 弓弦 〈역해상 21 : 1690〉

와 같이 찾을 수 있다.

‘시옮’은 ‘시울’에 그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어에서 ‘입시울’은 ‘입술’로, ‘눈시울’은 그대로, ‘활시울’은 ‘활시위’로 변화하였다.

⑤ 입아괴 문 吻 〈훈몽상 26 : 1527〉

님아귀 문 吻 〈자류주석 : 1856〉

입아귀 문 吻 〈자전석요 : 1906〉

입시육 문 吻 〈신자전 : 1915〉

입술 문, 뾰족나온 꽃 문 吻 〈장삼식 : 1975〉

입아귀 : 口吻 〈역어보 21 : 1775〉

입아귀 : 口角 〈한청 5:50〉

아구[agu] 〈경북〉 안동, 청송, 영양, 성주, 의성, 예천, 문경, 상주, 〈충북〉 충주, 〈강원〉 춘성 〈최학근 : 400 : 1987〉

아귀[agwi], 〈경북〉 영주, 상주 〈충북〉 청주, 옥천, 〈강원〉 옥계 〈최학근 : 400〉

입아가리[ip-agari] 〈경북〉 예천, 영주, 〈전남〉 고흥 〈최학근 : 400 : 1987〉

입아구[ip-agu] 〈경북〉 포항 〈최학근〉

아구통[aguthog] 산청 〈김영태 : 1975〉

아구지[aguci] 하동, 창원, 남해 〈김영태〉

‘입아괴’는 ‘입+아괴’의 조어로 ‘아괴’를 옛 문헌에서 찾아보면

아귀 뜨른 물 : 口軟馬 〈노해하 8〉

아귀 센 물 : 口硬馬 〈노해하 8〉

머리과 어괴예 : 頭口 〈태산집요 31〉

어귀 : 口 〈구간 6:81, 노해하 46, 한청 9:23〉

등의 용례가 나온다.

‘아괴·아귀·어귀’가 ‘口·出入口’의 뜻으로 보이며 현대어로도 ‘어귀’는 ‘드나드는 목의 첫 머리 〈한글학회 : 2836〉’로 사용하고 있다.

吻은 현재 ‘입술 문’으로 훈과 음을 읽지만 ‘입아괴’는 오늘날 ‘입’의 뜻으로 쓰인다. 방언형도 입을 나타내는 ‘아구, 아귀, 입아가리, 입아구, 아구통, 입아구’ 등을 찾을 수 있다.

⑥ 벗복 비 比 〈훈몽상 27:1527〉

벗복 상 映 〈훈몽상 27〉

벗복 불 脖 〈훈몽상 27〉

벗복 제 膽 〈훈몽상 27〉

벗복 제 膽 〈신증유합상 21:1576〉

비읍 제 膽 〈왜어유해 : 1682〉

도울 비 比 〈자류주석 : 1856〉

비읍 양 映 〈자류주석〉

비읍 불 脖 〈자류주석〉

비읍 제 膽 〈자류주석〉

비꼽 제 膽 〈아학편 : 20c 초〉

도울 비, 두터울 비 比 〈자전석요 : 1906〉

배읍 양 映 〈자전석요〉

배읍 발 脖 〈자전석요〉

배꼽 제 膽 〈자전석요〉

도을 비, 밝을 비, 두터울 비 毗〈장삼식 : 1975〉

배꼽 양 脠〈장삼식〉

배꼽 발 脖〈장삼식〉

배꼽 제 膽〈장삼식〉

배뽕[pe-?pon]〈전남〉영암, 강진〈최학근 : 365 : 1987〉

배뿍[pe-?puk]〈함북〉성진, 길주, 명천, 경성, 나남, 청진, 부거, 부령,
무산, 회령, 종성, 경원, 경홍, 용기〈최학근 : 365-366〉

중세 국어에서 배꼽을 나타내는 새김은 모두 ‘빗복’이다. 빗복을 의미하는 毗, 脠, 脖, 膽’ 중 ‘聃, 脖, 膽’가 ‘배꼽’의 뜻으로만 쓰인 데 대하여 ‘毗’는 〈字類〉 이후 ‘도을, 두터울, 밝을’의 뜻으로만 쓰여, 의미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빗복’의 방언 자료는 ‘배뽕’과 ‘배嬖’을 찾아 중세국어를 반영하는 희마한 흔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⑦ 맷구무 피 屁〈훈몽상 30 : 1527〉

밋구모 〈가례해 10:32 : 1632〉

방귀 비 屁 〈자류주석 : 1856〉

방귀 비 屁 〈지전석요 : 1906〉

방귀 비 屁 〈장삼식 : 1975〉

밀구멍 : 무슨 물건의 밑에 뚫린 구멍, 똥구멍, 보지 〈한글학회 : 1992〉

밋구무[mit-kumu]〈경북〉대구, 왜관, 예천 〈최학근 : 358 : 1987〉

훈몽자회의 ‘밋구무’는 ‘밀구멍’이 되었다. 古語에서 ‘구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졌다. ‘구멍’의 뜻과 ‘여자 음부’의 뜻이다.

孔巖 구무 바희 〈용三 13〉

터력 구무마다 〈석 十九 38〉
 구무 공 孔 〈신증유합 하 24〉
 구무 혈 穴 〈신증유합 하 57〉
 구무 비 屍 〈훈몽상 30〉
 구무 쥬 扈 〈훈몽상 30〉
 보지 비 屍 〈장삼식 :1975〉
 보지 저 扈 〈장삼식〉

앞의 네 가지 예는 ‘구멍(孔, 穴)’을, 뒤의 네 가지는 ‘여성 성기’를 나타낸다. 그런데 훈몽자회에 나타난 ‘屁’의 현대 훈은 방귀를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과 일치하지 않는다. 방언의 예에서 보듯 ‘밋구무’란 ‘항문’을 뜻하지 방귀의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⑧ 오곰 곡 脣 〈훈몽상 28 : 1527〉
 오곰 츄 脣 〈훈몽상 28〉
 오곰 유 脣 〈자류주석 : 1856〉
 오굼 수, 팔다리 오굼 추 〈자전석요 : 1906〉
 오금 곡 脣 〈장삼식 : 1975〉
 팔다리 오금 추, 오금 수 脣 〈장삼식〉
 오금 : 무릎의 구부리는 안쪽. 곡추 〈한글학회 : 3017 : 1992〉
 오굼[ogum] 〈경북〉 문경, 〈전북〉 군산, 김제, 〈제주〉 전지역 〈최학근 : 1987〉

‘오곰’은 ‘오금 / 오굼’으로 변하였다. ‘오곰’의 혼적이 〈경북〉, 〈전북〉 일부, 〈제주〉 전역에서 방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오줌’의 혼적과 유사하다.

오줌 노 尿 〈훈몽상 28 : 1527〉
 오줌 수 淑 〈훈몽상 30〉
 오줌 편 便 〈훈몽상 30〉
 오줌 노 尿 〈왜어유해 : 1682〉
 오줌 노 尿 〈자류주석 : 1856〉
 오줌 노, 짜질 낙 尿 〈자전석요 : 1906〉
 오줌 수 淑 〈자류주석 : 1682〉
 오줌 수 淑 〈자전석요 : 1906〉
 오줌 노 尿 〈장삼식 : 1975〉
 오줌 수 淑 〈장삼식 : 1975〉
 편할 편, 똥오줌 변 便 〈장삼식〉
 오줌[odzom] 〈경북〉 영주, 봉화, 성주, 왜관, 문경, 상주, 김천, 〈경남〉 밀양, 울산, 양산, 부산, 합천, 함양, 진주, 충무, 거제, 거창, 산청, 진양, 창녕, 의령, 남해, 〈전북〉 무주, 이리, 전주, 김제, 부안, 정읍, 임실, 진안, 장제, 〈충북〉 연풍, 괴산, 보은, 영동, 〈전남〉 구례 〈최학근 : 395-396〉

'오줌'은 오줌에 비해 역대 문현에 암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오줌을 나타내는 尿, 淑, 便是 한자이지만 오줌을 나타내던 腾자는 후대의 자료에 보이지 않는다.

- ⑨ 귀머리 과 跛 〈훈몽상 29 : 1527〉
 빙귀머리 눈 : 脚踝 〈금삼 2 : 8 : 1482〉
 밟았귀머리예 : 脚內踝 〈번박상 38 : 1510〉
 복쇼와썩화 跛 〈자류주석 : 1856〉
 복사썩과 跛 〈자전석요 : 1906〉
 복사뼈과 跛 〈장삼식 : 1975〉
 귀마리[kwimari] 〈제주〉 제주, 성산, 서귀, 대정 〈최학근 : 1987〉

‘귀머리’는 死語化되었으나 지금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귀마리’란 형태로 유일하게 남아 있다. ‘귀머리’는 ‘귀(耳)十머리(頭)’의 구성인데 이제는 ‘복사뼈’로 교체되고 말았다.

⑩ 오줌째 방·엇게 빙 〈훈몽상 28:1527〉

오줌째 포 脂 〈훈몽상 28〉

오줌째 광 脂 〈훈몽상 28〉

방광 방 빙 〈자류주석: 1856〉

오줌통 포 浮 〈자류주석〉

방광 광 脂 〈자류주석〉

오줌통 방 빙 〈자전석요: 1906〉

오줌통 포 脂 〈자전석요〉

오줌통 광 脂 〈자전석요〉

오줌통 방 빙 〈신자전: 1915〉

오줌통 포 脂 〈신자전〉

오줌통 광 脂 〈신자전〉

오줌통 방 빙 〈장삼식: 1975〉

오줌통 포 浮 〈장삼식〉

오줌통 광 脂 〈장삼식〉

오줌통: 몸안에서 콩팥으로부터 보내는 오줌을 받아 모으는 넓은 막으로

된 주머니. 방광(膀胱) 〈한글학회: 3043: 1992〉

오침깨[odʒim-?ke] 〈전남〉 장성 〈최학근: 396: 1987〉

오침깨[odʒim-?ke] 〈전남〉 담양, 나주 〈최학근: 396〉

위의 새김 ‘오줌째’는 〈훈몽〉에서만 보이고 그 뒤의 문헌에서는 ‘오줌통/오줌통/오줌통’ 등으로 나타나며 ‘방광’으로도 나타난다. ‘오줌째’는 ‘오줌+개[명사화접미사]’의 구성으로 본다. ‘오줌째’가 오늘날 ‘오줌통’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오줌통’은 ‘오줌+통(桶)’의 조어이며 ‘오줌째’는

표준말에서 사라지고 〈전남〉 지역에서 ‘오침깨’ 혹은 ‘오침께’로 남아 있다.

⑪ 피기 얼 曬 〈훈몽상 29 : 1527〉

트립 얼, 又홰 曜 〈자류주석 : 1856〉

말방울소리 환, 육지기활 曜 〈자전석요 : 1906〉

천천이갈 환, 재채이할 얼 曜 〈신자전 : 1915〉

재채기할 얼, 천천히 갈 환, 밝을 환 曜 〈장삼식 : 1975〉

피기 굿디아녀 〈언해태산집요 56 : 1608〉

피계:²⁶⁾ 〈황북〉 황주, 〈평남〉 양덕, 〈평북〉 넝변, 운전, 염주, 꽈산, 정주, 선천

피꺼기: 〈황북〉 린산, 수안, 연단, 황주, 〈평북〉 태천, 〈자강〉 회천, 동신, 전천, 강계, 우시

피꺼: 〈평북〉 박천, 선천, 삭주

피꺼질: 〈황남〉 강령, 배천, 〈황북〉 사리원, 린산, 서홍, 봉산

피꺼질: 〈평남〉 남포, 온천, 대안

피끼: 〈강원〉 판교, 〈황북〉 황주, 〈자강〉 랑림

피꺼데이: 〈평북〉 정주, 운산

폐기: 〈평남〉 양덕, 〈함남〉 함주, 오로, 신흥, 단천, 정평, 〈함북〉 무산, 응기, 희령, 〈량강〉 신파, 후창, 〈강원〉 천내, 고산, 법동

새김 ‘폐기’는 ‘딸꾹질’을 의미한다. 몇몇 문헌과 字典에서처럼 ‘트립’이나 ‘재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류주석〉에는 ‘트립’으로 나오는데 이는 잘못 주석한 것이다. ‘트립’의 뜻으로는 ‘曠’ 〈훈몽상 29〉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대 字典에서 주석한 ‘재채기하다’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의 뜻으로는

26) 이하는 김병제(1980 : 242), ‘딸꾹질’ 항목에서 인용했다.

조치용 分 嘴 <훈몽상 29>

조치용 韻 噙 <훈몽상 29>

가 있기 때문이다.

‘피기’가 표준어에서 死語化한 새김이나 북한의 방언에서 다소의 변이 형이지만 풍부히 쓰이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IV. 마무리

국어의 분류어휘집의 체제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거의 모든 분류어휘집이 신체(혹은 인체)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항목의 표제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편에 속한다. 또 신체어는 국어의 기초 어휘를 형성하며 단음절이면서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결국 국어 어휘론을 말할 때 신체어의 존재가 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도 필요조건은 된다고 본다.

훈몽자회 ‘신체’부 새김은 모두 208개로서 중세국어 신체어의 풍부한 어휘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표준어에서는 사라졌지만 방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어휘가 있었다. 상기한 중세국어의 신체어와 관련한 방언 자료 11종은 빈약한 양이지만 이런 작업을 계속하여 옛 우리말의 재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탰으면 한다.

참고 문헌

(각주에 소개된 문헌은 제외했음)

〈저서, 논문류〉

강신항(1974), 「조선관역어연구」, 광문사.

곽재용(1992), 중세국어의 신체어, 경남어문논집 제4집.

김영태(1975), 「경상남도 방언연구(1)」, 진명문화사.

김영태(1991), 경남방언연구의 흐름과 방향, 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 경운
출판사.

김재문(1977), 서부경남방언의 음운연구, 진주교대논문집 15.

김정대(1990), 경남방언 문법연구의 흐름과 과제, 경남어문 23, 경남어문화
회.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김형철(1992), <수쟁옥낭좌전>의 어휘 연구, 가라문화 제9집, 가라문화연구
소.

김형철(1992), 어휘론 연구사, 국어국문학 40년, 집문당.

남기탁(1988), 훈몽자회 <신체>부 자훈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선규(1972), 「조선관역어연구」, 경인문화사.

박병철(1984), 훈몽자회자석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병철(1986), 「신증유합」의 한자어 자석연구, 조선상선생고희기념논총.

박정수(1976), / · / 음소에 대해 – 경남 산청방언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동아대)

손희하(1991),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기중(1985), <몽어유해> 연구, 역사언어학, 전예원.

신경철(1978), 신증유합의 자석연구, 한국언어문학 16, 한국언어문화회.

신경철(1992), 자석의 역사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태식(1990), 경남방언의 어휘연구 – 그 현황과 과제 – 경남어문 23, 경남어

문학회.

- 염선모(1977), 경남 서남부 말의 모음체계, 경상대논문집 16-2.
- 이가원(1960), 〈물보〉와 실학사상, 인문과학 5,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기문(1971), 「훈몽자회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이돈주(1979), 훈몽자회의 한자음 연구, 전남대논문집 25.
- 이돈주(1985), 훈몽자회의 구성에 대한 재검토, 김형기선생팔칠기념 국어학
논총.
- 임지룡(1989), 국어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 19, 국어학회.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 정 광(1978), 유해류역학서에 대하여, 국어학 7, 국어학회.
- 조건상(1968), 동문유해의 국어사적 연구, 충북대학논문집 2.
- 조건상(1971), 동문유해의 국어사적 연구(二), 충북대학논문집 5.
- 최범훈(1985), 방언집석연구, 김형기선생팔칠기념 국어학논총.
- 최학근(1962), 전라남도 방언 연구, 한국연구원.

〈사전류〉

- 김이협(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남광우(1991), 보정고어사전, 일조각.
- 유창돈(1990),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장삼식(1975), 대한한사전, 박문출판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